



<아시아박물관 기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of Jakarta, Indonesia

고정은*
Jeong Eun KOH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자카르타국립박물관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중앙정원을 중심으로 조각 컬렉션, 민족 컬렉션(자바, 수마트라, 발리 칼리만탄, 슬라웨시, 파프아, 마르크), 전통가옥모형, 청동기, 선사시대, 도자기, 염직물, 아시아 전시실, 코인, 네덜란드통치기 컬렉션, 2층의 고고학 및 민족학 컬렉션 등 시대별로 매우 다양한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필자는 올초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때 자카르타국립박물관 소장품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현지에서 구입한 박물관 소개책자에 언급된 내용과 그 대표적인 소장품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지역원 HK연구교수, kohje@iseas.kr



<그림 1> 자카르타국립박물관 중앙 정원. 출처: 필자사진.

자카르타국립박물관의 성립

‘계몽의 시대’로 잘 알려진 18세기전반의 유럽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의문과 과학적 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한편 이것과 시기를 같이 하여,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사고가 싹트기 시작하여, 1778년 4월 24일, 네덜란드동인도회사 총독이던 레니엘 드 크랄이 ‘바타비아예술과학원’의 창설을 허가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립된 이곳은 네덜란드령 동인도(현 인도네시아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다면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조직구성원은 네덜란드동인도 회사의 몇몇 평의원이 이사가 되고, 레니엘 드 크랄은 운영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그의 이복 여동생과 결혼한 자콥스 콜네리스 마테우스 라텔마하도 구성원에 참여하였는데, 후에 그는 학원장까지 되었다. 라텔마하는 서적, 악기, 석조조각과 그 외의 골동품 등을 다수 기증하는 등 학원발전에 공헌하였고, 1779년에는 코타, 칼리 발의 자택을 전시장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이 당시 상류계급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골동품 수집이 매우 고상한 취미로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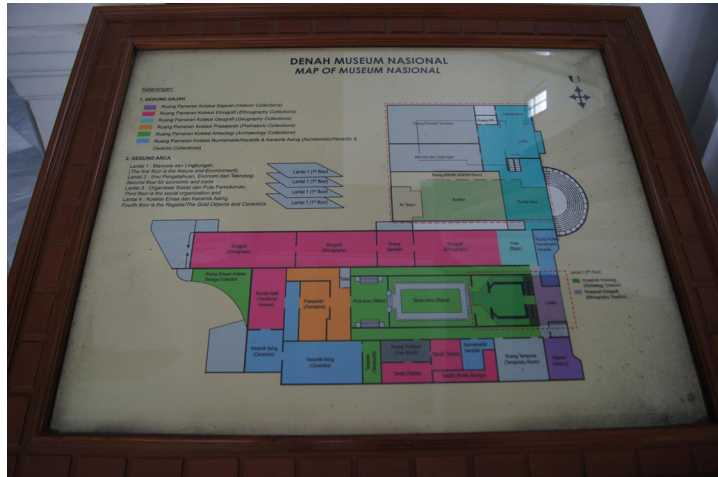
관이 창설됨과 동시에 순식간에 기증품이 증가했다. 드디어 박물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자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되었고, 서적의 대출도 3주를 한도로 해서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를 인도네시아에서 몰아낸 영국은 1813년에 토마스 스텐포드 랫플즈를 자바의 부총독 및 바타비아예술과학원장으로 임명했다. 라텔마하는 이미 1794년에 생을 하직한 후였고, 그에 못지않은 정열을 지닌 랫플즈는 동인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각 분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열성적이었고, 과학원 내에서 새로운 연구를 장려하였으며, 수집품을 위한 별관을 기부하고 ‘학술협회’라고 명명했다. 그 후, 새로운 박물관의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물이 완성된 것은 1868년이 되면서부터였다. 새로운 박물관은 삼(지금의 태국)의 쯔라롱콘 국왕이 1871년에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청동제의 코끼리를 정면광장에 기증한 것에서 ‘코끼리 관’이라 부르게 되었다. 1931년 박물관 수집품이 파리의 세계문화전람회에 출품되었을 때, 운이 나쁘게도 인도네시아관이 화재가 나서 출품품의 절반이 손실되었다. 이 때 지불된 변상보험금을 바탕으로 도자기실, 청동기실과 2층의 두 곳의 보물실이 건조되었다. 1936년에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이슬람교 전문가였던 후세인 자자티닝그라트 박사가 초기 인도네시아인 관장으로 임명되어 1960년까지 재임했다. 1950년에는 그 명칭도 ‘바타비아예술과학원’에서 ‘인도네시아문화기금’으로 변경되었고, 1962년에는 인도네시아정부의 교육문화성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 ‘중앙박물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1980년에는 서적류가 이미 박물관에서 사렌바 거리의 새로운 국립도서관으로 옮겨졌고, 1994년 당시의 문부대신, 와르디만 조조네고로의 제창에 의해 박물관의 증축이 시작되었다. 현존하는 건물에 인접해서 완전히 동일 양식의 새로운 건물이 21세기초기의 완성을 목표로 착공되어 전시장의 증설뿐만 아니라, 극장공간도 조성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그 문화적 배경

유럽대륙이 빙하기였을 때,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그 대부분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고, 특히 자바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류가 살기 시작한 곳 중의 하나였다. 1891년에 중부자바의 솔로강 연안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유인원의 일종인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이 발굴되었고, 100만년전부터 이 지역에 인류의 조상이 존재했음이 증명되었다. 원래 호모 에렉투스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서서히 사회성을 가지게 되자 집단사회를 형성하였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파종을 하고 농경작업을 하는 것을 서서히 배워나갔다. 중석기시대에는 구석기시대의 단순한 돌도끼 등이 보다 복잡화한 농경기구로 교체되었다. 신석기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도구와 조각, 카누 등을 제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다른 용구, 예를 들면, 바구니, 천, 도자기 등의 제작기술도 습득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금속기시대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문명 보다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발달했다. 금속기시대의 도래는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금속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기 쉬운데다가 영구성이 높아 지금까지의 어떤 용구보다도 사람들의 작업을 쾌속화했다. 금속기의 출현은 농경작업 등을 손쉽게 하고, 보다 풍요로워진 사람들은 종교로 관심을 쏟게 되었다.

사람들은 점차, 정령신앙(애니미즘) 만이 아니라 조상숭배의 사고를 갖게 되었다. 소유하는 물품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신이나 조상에게 바쳐야 한다고 믿게 되었으며, 공물을 보다 완벽한 형태로 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 시기 별에 의한 항해술 등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예술가, 기술자 등이 동업자들 사이에서 조합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예를 들면, 도공, 직공, 금은세공사 등의 조합이 결성되었고 집단사회 및 지배자를 위해 일을 하였다. 서력 200년경에는 인도의 상인이 인도네시아로 도래하기 시작했고,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 예술, 언어, 천문학, 문학 등의 영향도 당연했지만, 힌두교와 불교의 전래에 의한 종교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리고 지배자를 유일신성한 신의 환생으로서 숭배하였다. 힌두



<그림 2> 자카르타국립박물관 배치도. 출처: 필자사진.

· 불교왕국을 구축한 마자파히트 시대에서도 1292년부터 1398년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황금시대였고, 최대강국의 영토를 보유하고, 동시에 최초의 국가로서 통일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 컬렉션

인도네시아에서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된다고 추정하는데,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실용면이나 문화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청동의 동과 주석과의 합금으로 용해점은 저온이다. 제조공정은 화로 불에서 달궈지면 두드려서 성형하는 단조(鍛造)와 납으로 만든 거푸집에 용액을 부어 만드는 철조(鐵造)가 있다. 도끼, 의례용구와 장식품 등이 가장 일반적인 청동기의 기물이었다. 고전시대의 시작과 함께 그 생산과 철조기법은 개량발전을 이뤄 용접 등의 기법이 도입되었다. 청동기는 신앙의 대상인 신상(神像) 및 불상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모양이 있고, 장식도 화려하고 아름답다. 또한 청동은 무너지기 쉬운 재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물항아리를 비롯한 테라코타의 생활용기 등은 원형대로 청동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자카르타국립박물관에는 3,199점에 이르는 청동기가 보존되어 있



<그림 3> 청동북(동고). 기원전 2세기경~기원후4세기경. 인도네시아 서누사 텡가라, 비마 상케양 섬 출토. 출처: 필자사진



<그림 4> 청동불입상. 7세기.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시켄덴. 1921년 발견. 높이 75cm. 출처: 필자사진.

고, 청동북<그림 3>을 비롯하여 그 대표적인 것이 청동기실에 진열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품을 몇 예 들어보면, <그림 4>의 대형의 불상은 복잡한 납형 철조의 기법을 구사한 작품이다. 내부는 비어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청동제 불상으로는 두 번째로 큰 것이다. 다만, 불교문화의 흔적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 발견된 점에서 선원들 사이에서 크게 신앙되었던 디팡카라불로 추정되며, 난파한 선박에서 해안가로 끌어올려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트리무르티<그림 5>는 힌두교를 대표하는 3대신,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를 뜻한다. 이들 신들은 승물(乘物)이라는



<그림 5>三大神 트리무르티. 11-12세기.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팔렘방 출토. 높이 (왼쪽부터) 57cm. 57cm. 46cm. 출처: 필자사진.

전용의 이동수단이 있는데, 물새, 가루다, 목우 위에 서있고, 네 손에는 신성을 표현하는 지물을 쥐고 있다. 3대신은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숭배되지만, 특히 자바에서는 5세기 이후, 유일하고 절대적인 최고신이 각각의 신격을 나타낸 모습으로 신앙되었다. 그중에서도 시바신앙이 널리 확산되었고, 시바신을 모시기 위해 찬디라 불리는 사원이 다수 세워졌다.

관세음보살의 아름다움은 온화한 표정과 간소한 장식을 바탕으로 더 돋보인다. 대승불교의 설화에 따르면, 보살은 깨달음을 듣고 승천하기 보다는, 지상에 남아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자비를 나타내는 부처로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서방 정토에 주재하는 아미타여래의 가르침을 체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8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서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최고 위치에 있는 부처이자, 또 권력을 가진 왕들의 상징으로서 널리 숭배되었다. 그 특징은 머리 위의 두발장식에 있는 작은 아미타상과 정신의 각성을 상징하는 붉은 연꽃, 그리고 오른손으로 결한 시무인의 수인을 들 수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끈 달린 램프<그림 6>는 병 위에 앉은 카루다의 손과 발이 의인화되어 있는 점에서 동부자바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병의 대좌 다리의 형상과 병 주위에 있는 8개의 글자모양을 한 넝쿨형태의 장식도 동부자바기의 청동기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13세기 경 태양신 수리야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면, 야간에는 비슈누신이 램프를 밝혔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근거로 비슈누신의 승물



<그림 6> 램프. 13세기.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문티
란에서 매입. 높이 30.5cm.
출처: 필자사진.

인 가루다는 램프를 장식하는데 매우 어울리는 상이 되었다. 램프의 기단부에 있는 3장의 잎 모양의 용기는 기름받이 그릇으로 추정된다.

도자기 컬렉션

자카르타국립박물관 도자기 컬렉션은 수세기에 걸쳐 인도네시아의 해양교역의 양상을 방물케한다. 중국인들이 일찍이 전한(기원전 202~기원후 8)시기에 인도네시아를 경유해서 인도로 향해하고 있던 점, 또한 양국간에 정식 상업활동이 확립되어 있던 점 등이 조사연구의 결과 분명히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제도에는 진귀한 유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시의 외국 상인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위험한 항해에 도전했다.

수많은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침몰했고, 물물교환용으로 적재되었던 도자기 등의 화물이 해안가로 밀려왔다. 이처럼 표류한 도자기류는 주로 가정에서 일상용품으로 사용되었다. 또 수가 적은 고급 도자기류는 경쟁적으로 구매하여 전래의 가보로서 대대로 소중하게 계승되어져 자녀의 출생을 비롯한



<그림 7> 도자기 전시실. 출처: 필자사진.



<그림 8>
도자기 전시실.
출처: 필자사진.

할례식, 혼례, 장의 등 통과의례 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때로는 주문에 응해 제조된 것, 혹은 지방 권력자들의 기답품으로 제공된 것도 있다. 도자기 컬렉션 중에서 대표적인 국외 도자기류의 대표적인 것은 네덜란드인 수집가 판올소이 드 호리네스의 기증품으로, 그는 1959년에 최초의 도자기분야 학예



원으로 취임했다.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는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발견 혹은 발굴된 것인데, 그 국적은 실로 다양하다. 이들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는 외형적인 형태, 무늬, 아름다움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통해 일찍이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도자기 전시실의 중국도자기. 출처: 필자사진.

염직 컬렉션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염직 전통을 갖고 있으며, 국립박물관 컬렉션이 그 문화유산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여신이 인도네시아에 면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천을 짤 수 있도록 자신이 방직



<그림 10> 바틱 전시실. 출처: 필자사진.

기로 변했다고 한다. 의류는 고대로부터 다양한 재료, 예를 들면, 파인에 플, 파초芭蕉 등의 식물섬유, 또 나무껍질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왔다. 그러나 감정가 및 수집가의 관심을 끈 것은 바틱(Batik)과 이카트(ikat)였다.<그림 10>

바틱은 손으로 그리는 것과 압형기로 짜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다. 흰 목면 또는 비단에 방염을 위해 열을 가한 밀납을 놓고 염색한 후, 밀랍을 걷어내면 그 부분이 무늬로 되어 남는 그러한 공정을 색의 수만번 반복한다. 반면에 이카트의 경우는 직조에 들어가기 전의 공정 과정에서 실 자체를 물들인다. 날실(經絲 세로)과 씨실(緯絲 가로), 혹은 經緯絲 모두를 염색한다. 먼저 실타래를 나무틀에 펼치고, 방염질 섬유를 이용해서 무늬를 딱딱하게 묶은 후 염색작업에 들어간다. 시간이 걸리는 염색작업을 수차례 반복한 후, 묶은 곳에는 염색하지 않고 남겨둔다. 무늬가 디자인한 대로 염색되어지면, 날실을 직기에 걸치고 씨실을 통과시키는 직물작업으로 옮겨간다. 오늘날에는 합성염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옛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식물뿌리, 나무껍질, 나무열매, 나뭇잎 등에서 추출된 천연염료를 사용하는 곳도 남아 있다. 완성된 의복에 자수 혹은 비즈, 조개, 코인, 거울 등의 장식을 달아 멋스러움이 더해진다. 전통염직은 인도네시아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복은 그 무늬와 색에 의해 신분이나 계층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들 염직물들은 수세기에 걸쳐 전투무용이나 혼례, 장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식과 의례에 불가분의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조각 컬렉션

석조 조각은 입구를 지나자마자 바로 첫 갤러리에 크고 작은 조각품들이 좌우 양옆으로 ‘ㄷ’자 모양으로 촘촘히 진열되어 있다. 힌두신상은 물론이거니와 불교조각, 조상숭배와 관련된 작품, 비석 등이 즐비하다. 주로 자바의 중부와 동부, 그리고 수마트라에서 발견된 이들 조각품들은 대체로 사원의 벽감 혹은 본당에 안치되어 있었다. 석재 중에서도

안산암이라는 재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제작된 동부자바기의 석상은 사암 혹은 석회암이 사용되기도 했다. 4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힌두교 및 불교의 영향이 인도네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시기에 조성된 석



<그림 11> 자카르타국립박물관 테라코타 전시실. 출처: 필자사진.

상은 인도동부에서 제작된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 인도의 조각가들은 ‘시르파사수트라’라는 책에 따라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규정대로 ‘상(像)’을 제작해야만 했는데, 예를 들면, 눈은 연화처럼, 눈썹은 활처럼, 팔은 코끼리의 코처럼 만들어야만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인도의 영향은 어느 정도 확산되었을 것이나, 14-15세기의 마자파히트 시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인도네시아적인 양식의 석상이 제작되게 되었다.

<그림 12>의 석비는 남 수마트라의 팔렘방, 바투호수에서 출토한 것이다. 반원형의 모습에 상부에는 7마리의 코브라의 머리가 표현되어 있다. 그 아래 정면에는 28행의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오랜 세월 속의 풍화에 의해 몇몇 문자밖에 해독할 수 없다고 한다. 하단에는 수평의 단사에 의해 길게 도랑처럼 패인 줄이 새겨져 있고, 중앙에는 요니의 형태를 한 물이 흘러나오는 꼭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명문은 말레이고어로 쓰여 있는데, 이 문자는 스리비자야의 명문에서도 사용되었고, 후에 팔라바문자로 된 것이라 한다. 명문에는 스리비자야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 적과 밀통하여 왕에게



<그림 12> 석비.

출처: <http://www42.tok2.com/home/omdo yok/Indonesia/Aind-72/Aind-72.htm> 인용.

반란을 일으킨 자, 도망쳐서 적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자는 죽음의 주술에 걸릴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비문의 일부이기도 한 도랑과 물이 흘러나오는 꼭지 부분은 틀림없이 돌 위에 물을 붓은 후 그 물을 받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왕국의 역인이 취임 전에 서약을 할 때 그 물을 마신다고 한다. 이 석비는 필시 왕국이 통합되기 전인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3>은 수마트라의 잠비(Jambi)에서 출토한 불입상으로 7-8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불의는 통견으로 양쪽 팔꿈치 이하는 손상되었지만, 남아 있는 부분으로 추측해 볼 때, 오른팔을 팔꿈치를 거의 직각으로 굽히고 어깨 부근으로 올려 시무외인을 짓고 있었다고 보이며, 왼팔은 팔꿈치 부분이 약간 밑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하하여 옷깃을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발은 편평하고 성글게 표현된 것이 특징으로 육계는 정상에서 약간 뒤로 치우쳐진 듯하다. 머리 뒤로는 두광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목 뒷부분에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얼굴과 양손 등 마멸과 손상이 심한 편이지만, 신체 전반에서 풍기는 괴량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작품이 출토한 수마트라 섬의 잠비는 말라유(Melayu, 말레이Malay) 왕국의 판도에 속하는



<그림 13> 불입상. 수마트라섬 잠비 출토. 안산암. 높이 172cm. 7-8세기. 출처: 필자사진.



<그림 14> 아가스티야 입상. 중부자바, 찬디 바논 출토. 안산암. 높이 196cm. 8-9세기. 출처: 필자사진.

곳으로, 멀라유 왕국은 7세기말에 인접국이던 스리비자야에게 정복을 당한, 혹은 스리비자야의 수도가 팰렘방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설도 있다. 이 작품의 제작연대는 7-9세기 사이라고 보는 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멀라유 왕국인지 스리비자야 왕국인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

스리비자야나 멀라유 지역에서 대승불교가 번영하고 있었다는 점은 중국측의 사료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아가스티야 입상<그림 14>은 중부자바의 찬디 바논(Banon)에서 출토되었다. 아가스티야(Agaatya)란 《리그베다》에 나타나는 성스러운 선인으로, 《라마야나》에서도 등장한다. 그가 활약하는 곳은 인도 아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빈디아 산맥의 남쪽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후대 특히 남인도에서 크게 숭앙받았다. 남인도 출라왕조의 작품에도 본 상과 매우 유사한 상이 존재한다. 자바의 시바계 사원에서는 주실에 시바를 모시고, 남쪽의 측방 혹은 벽감에 아가스티야를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자카르타국립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제일 큰 바이라바상<그림 15>은 힌두교 시바신이 분노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허리에는 힌두교의 수호신 칼라의 장식을 한 벨트를 차고 있다. 칼라의 입에서 늘어뜨린 장식 끝에 달려있는 방울<그림 16>은 탄드리교의 심볼로, 이



<그림 15> 바이라바. 13~14세기.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 빼당 라와스 출토. 높이 414cm. 출처: 필자사진.



<그림 16> 바이라바 세부모습.

를 통해 당시 신앙되고 있던 종교의 혼합상황을 엿볼 수 있다. 즉 탄드리계 불교의 신, 바이라바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덜란드통치시대 컬렉션

이 소장품들은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친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유럽과 인도네시아의 대표를 비롯해서 유럽가구, 싱가포르 랫플즈박물관에서 기증한 스텐포드 랫플즈경의 흉상, 지금까지도 내용물이 공개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는 보석함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의 천정에 걸린 나무로 만든 대들보와 자바식 조각이 새겨진 문은 예전에 바타비아지구 칼리브사르에 있던 상점 ‘트코 메라’ 건축물의 일부라고 한다. 네덜란드통치시기 컬렉션의 대다수는 1972년에 자카르타역사박물관으로 이전되었지만, 1978년에 네덜란드정부가 반환한 유품들은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자카르타국립박물관이 예전의 바타비아예술과학원 박물관이었을 당시, 이 전시실은 이사들의 집회실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가끔 집회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보물실(고고학 및 민족학 컬렉션)

2층에 있는 보물실은 고고학 및 민족학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2천 점이 넘는 금은제의 소장품 대다수는 계획적인 발굴조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한다. 1990년 중부자바의 크라텐의 워노보요에서 관개용수로 작업을 하던 농부들이 5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변형한 자바고전시대의 보물이 숨겨져 있던 장소를 발견했고, 10세기초기의 머라빠 활화산의 대분화에 의해 용암 밑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는 35kg 이상이나 되는 호화로운 금은공예품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20세기 최대의 발견품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출토품은 고고학실 중앙에 전시되어 있다. 한편, 민족학실에는 18세기부터 20세기초기의 보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대다수는 14K부터 24K로, 보석으로 장식된 것 등 다양한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다.